

## ■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무대예술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무대예술분야
- 회의일시 : 2019년 5월 14일(화) 13:30~19: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무대예술분야에는 무대디자인, 영상 디자인 등 총 11명이 지원 신청하였으며, 심의는 지원신청서에 대한 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대디자인 분야는 총 5명이 지원했다. (※무대, 음향의 융합적 시도 포함)

지원자의 연령대(25세~35세), 무대예술 입문 이전의 전공 분야(간호학, 조경학, 서양화 등), 무대예술 경력 등 다양했다. 지원자들은 기존의 무대예술 및 공연예술의 틀 안에서 요구되는 무대디자이너의 역할 뿐만 아니라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역량 및 ‘공간개념을 확장’ 해 가려는 지원동기가 비슷했다. 따라서 심사는 지원자의 ‘창작계획의 독창성’ (예컨대 감정의 시각화 및 감각의 확장, SNS 공간 활용을 통한 관람방식의 확장, 공공장소에 대한 문제 제기, 재료에 대한 고민과 실험 등)과 ‘수행계획의 구체성’ 을 평가에 주요하게 반영하였다.

음향디자인 분야는 총 5명이 지원했다. (※음향 및 무대, 음향 및 영상의 융합적 시도 포함)

지원자 대부분은 클래식 작곡을 기본으로 컴퓨터음악 및 현대음악 그리고 연주와 퍼포먼스를 넘나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내용으로는 경기도당굿을 디지털과 접목한 인터랙티브(Interactive) 연주, 이머시브(Immersive) 오디오에 대한 실험, 환경문제를 주제로 한 음악전시, 인식의 주체인 관객을 위한 사운드 퍼포먼스 등등 다양하며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창작계획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음악과 사운드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음악의 시간성과 사운드의 공간성’ 에 대한 언급이 흥미로웠다. 왜냐하면 음향디자인 지원자 대부분이 각자 창작계획의 독창성에도 불구하고, 그 수행의 결과는 ‘사운드 설치(sound installation)’, ‘공간연출’, ‘음악전시’, ‘인터랙티브(Interactive) 연주’ 등 공간에 대한 연구와 확장을 엿볼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영상디자인 분야는 2명이 지원을 했다.(※음향 및 영상의 융합적 시도 포함)

이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의 기준은 비교적 분명했다. 먼저 지원자 두 명의 창작계획에 대한 모호성과 구체성, 진부함과 독창성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실현계획의 가능성을 더 잘 보여준 지원자에게 보다 높은 평가를 하게 되었다.

기타 분야는 1명이 지원했다.

마술사(일루셔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지원자는 행사 퍼포먼스로서 마술을 무대예술의 일루전(Illusion)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마술쇼와 차별성을 갖기 위한 창작에 필요한 공간의 이해, 무대 및 조명 연출에 대한 창작계획이 구체

적으로 제시되어 심사에 반영하였다.

모든 지원신청서와 인터뷰 심사에 대한 심의위원 각자가 개별검토를 하였으며 토론의 과정을 거쳐 총 8명의 무대예술분야의 차세대예술가를 선정하였다.

전반적으로 지원자들의 ‘공간 개념에 대한 확장성’ 과 ‘관객참여’ 혹은 ‘관객의 수행성’ 등에 대한 시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무대디자인, 음향디자인, 영상디자인, 기타 부분을 포함해서 젊은 예술가들의 이러한 작업 형태를 보면서 ‘시스템이 사람보다 더디다’ 라는 인상을 받았다. 즉, 현실의 지원제도가 현장의 젊은 예술가들의 다양하고 실험적인 작업형태를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너무 안이하거나 느리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분야의 예술 경계가 모호하고 알팍해지는 지금, 21세기의 무대예술이 지향하는 바를 더 이상 20세기 극장의 틀 안에 가두어 둘 수는 없을 것 같다.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무대예술분야 지원심의위원 일동